



가람의 장면들

8

선운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옛배지붕 형태로 백제건축의 진수를 보여주는 선운사 대웅전. 한국건축의 이름다운 건물사이 여백이 근래들어 소실돼 아쉬움이 남는다.

여백미 사라진 자리 동백꽃만...

고향 선운사만큼 사심을 자극하는 절도 드물었다. 미당 서경주는 "선운사 골짜기로 / 선운사 동백꽃을 / 보러 갔더니..."로 시작하는 '선운사 동구'를 명시를 남겼다. 그러나 동백꽃 뿐 아니었다. 웅장한 대웅전은 지면에 붙은 듯, 이른바 백제계 건축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품이었고, 휘어진 돌보들의 만세루는 민중적이면서도 종교적인 회일로 가득한 건물이었다. 건축에 능통한 시인이 있다면 선운사 건축의 역동적 에너지와 광활로운 공간을 소재삼아 또 다른 명시를 남겼을 것이다.

선운사에는 두 개의 중요한 불전이 있다. 예의 대웅전과 대웅전 서쪽의 영산전이다. 대웅전이 물론 규모도 크고 고급스럽기는 하지만, 맞배지붕을 하고 옆으로 길쭉한 두 건물은 서로 다른 형태와 같이 동시에 나란히 서 있다. 그 가운데 빼다하게 놓인 노전건물이 있었다. 아마도 대웅전과 영산전 두 건물을 모두 관리했던 노전스님의 거처였으리라. 이 노전체는 관리상 두 불전 사이에 끼워넣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두 불전의 마당을 나누어 주는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선운사 마당은 동서로 길쭉하다. 자칫하면 평하고 평창한 마당이 되기 쉬웠으나, 약간 틀어놓은 노전체가 긴 마당을 두 개로 쪼개어 한 부분은 대웅전에, 다른 한 부분은 영산전에 속하도록 시각적으로 구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언젠가 노전체를 철거하고 말아 선운사 마당은 열려대로 비례가 맞지 않는 명칭이 되어버렸다.

반서쪽의 서쪽에도 그처럼 요사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승방 내부에 청정한 대방을 가진 고급의 요사채였다. 마치 폭언의 명상에 잠긴 듯한 근엄한 표정으로 마당을 감싸며 선풍(禪風)을 불린 풍기는 명품이었다. 재대로된 승방 건물로는 몇채 남지 않은 회귀건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승방도 철거되고 말았다.

선운사에서 사라진 것은 두채의 요사채만이 아니다. 길쭉했기 때문에 아늑하고 평화로웠던 마당의 분위기는 사라졌고, 더욱 물려든 관광객들의 소란만 가득한 곳이 되었다. 마당과 하

나로 엮어진 조망이다. 문인회와 난초 그림을 감상할 때, 난초의 흐드러짐이 주체가 아니라 입줄기 사이의 여백이 주체이듯이, 한국건축의 주체는 건물 사이의 여백이며, 여백과 건물과의 관계이다. 선운사에는 이제 이 여백의 관계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선운사의 건축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은 셈이다. 아무리 대웅전과 영산전 건물이 위대한 작품이라 해도 부분에 불과하다. 선운사라는 가람의 전체성은 사라지고 건물이라는 부분만 남은 꼴이다.

한양상의 관문이었던 승래문은 이제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심의 외반 섬이 되어 남대문으로 전락했듯이 선운사의 대웅전과 영산전은 빈 공간으로 둘러싸인 또 다른 섬이 되었다. 어디 선운사 뿐이랴? 중국 절같이 우스꽝스러워 된 수덕사, 사나운 불사자가 포효하는 해인사의 구경루 마당, 승보사찰의 진풍을 압도하며 우뚝 선 송광사의 대웅전, 계곡의 건축적 질서를 매워버리고 새로 들어선 고운사 대웅전... 그리고 미처 비관도 못받으며 사라지고 변형되어 가는 수많은 작은 사찰들, 모두가 건물을 살리려다 건축을 잃어버린 실책자들이다.

이제 선운사에는 동백꽃만 예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시대의 필요에 따라 가람의 건축도 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가람이란 불교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나오자일 뿐이다. 그러나 좋은 곳으로의 변화만이 가치를 갖는다. 천여년간 축적되어왔던 전통을 하루 아침에 무시하면서도 전통사찰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면서도 전통적 질서를 잃지 않아왔던 고귀한 알 스님들의 심미안은 언제나 부활할 것인가.

노전·요사채 철거로 마당은 비례 맞지않고 아늑한 분위기도 잃어

나가 되어 넓고 풍요로웠던 대웅전과 영산전의 영역성은 사라지고, 운동장 같이 평한 마당에 두 조각만 덩그러니 남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 폐허가 된 절터가 한두곳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폐허화된 절터에는 원래의 흔적이 남고 땅의 자취가 남았다. 그래서 폐허 위에서 온갖 역사적 건축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운사의 폐허는 일절 흔적마저 사라져 버려서 폐허인 것조차 모르게 한다.

한국의 건축이란 전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건물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놓여진 마당이고, 마당과 건물이 하

TV인터넷 불교 정보화 침범

컴퓨터 몰라도 인터넷 '척척' 여럿이 사용...법회 동영상 중계

컴퓨터의 '킵' 자도 모르는 컴맹도 또한 컴퓨터가 없는 사람도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됐다. 컴퓨터 없이 TV를 통해 인터넷을 즐기는 것이다. 작동도 TV를 보듯 리모콘 조작으로 간편하게 한다. TV에 인터넷이 떠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동안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접속 절차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기성세대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뉴스. 특히 광군 연령층이 높은 불자들은 TV로 인터넷에 뜨는 모든 불교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케이블 TV나 비디오를 보려면 TV에 단말기를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TV인터넷도 TV에 '인터넷 단말기'를 달면 된다. 큰 TV 화면으로 여럿이 함께 볼 수 있고, 필요한 정보는 화면인쇄도 가능하다. 불교관련 중요한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제공도 할 수 있고 동시에 디지털화 함으로써 영원히 보존할 수 있다. 놀라운 성능은 8월부부터는 최첨단 동영상 기능이 개발돼 TV방송국처럼 TV인터넷을 통해 전국중계방송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신도 교육을 할 때나 해외 신도관리에 효과적인 매체로 활용할 수 있고 중요한 법회를 전국 사찰과 신도가에서 TV인터넷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큰스님 육상법문을 영원히 보존할 수도 있다.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5분만에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국인 정보화를 가능케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정보세계에서는 TV인터넷이 컴퓨터를 대체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인터넷을 개발한 (주)홍TV인터넷 대표 이장욱씨(33)는 강한 자신감을 밝혔다.

지식 정보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정보의 대중화와 혁신적인 포교방안으로 TV인터넷 보급불사를 벌이고 있다. 상담 문의 (02)732-1520

위영란 기자(yryu@buddhapis.com)

TV인터넷 사용하는 중회의장 범등스님



매일 1시간씩 이용 불교 정보화 선구

"정보화시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인 추세를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정보운영 능력에 따라 경쟁력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불교계도 정보화시대를 주도하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TV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중회의장 범등스님. 스님은 하루 평균 1시간 인터넷 향례를 해 불교정보를 비롯해 사회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

"그동안 기본적인 워드작업 정도는 해왔으나, 인터넷으로 사회 흐름이나 국제사회의 추이를 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중단을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왔는데, TV인터넷을 알게돼 설치하고는 아주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중회의원스님들을 비롯한 주위 스님들에게 정보화 시대의 포교전략으로 인터넷을 알아야 한다며 편리한 TV인터넷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컴퓨터를 몰라도 TV를 보듯 간편한 리모콘조작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

TV 인터넷과 컴퓨터 인터넷의 차이점

구분	TV 인터넷 단말기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법 및 설치	간단	어려움
가격	최대 20만	100만(대용 모니터 별도)
운영체제	프로그램 자동 업그레이드, 무료 업그레이드	Windows 등 유료 업그레이드 시 추가비용 발생
상시접속	TV가 있는 곳(거실, 응접실) 누구나 공동의 주제를 검색하고 이야기 할 수 있음, 전전 정보 검색	주요 중방을 한방이 보고 있는 내용(포로노, 게임 등)을 검색하기 어렵다
전용 키보드/영상/청음기	6.5 이하	8월 이상(Wide) 필수(가장)
교육용프로그램 제공	홍TV 인터넷에서 영산, 법문(시사영어), 교학(사찰) 등 전문의사와 협력하여 제공	학생 자격이 정보 습득
인터넷 접속방법	전화선, ADSL, 케이블	전화선, ADSL, 케이블
사용 언어	한글, 영어, 일어, 불어, 독일어 등 전세계 언어 지원	한글, 영어
주요 사용계층	교사, 학생, 학부모	학생
자료인력	부산 키보드, 부산 마우스	부산 키보드, 부산 마우스
음향	TV 스피커 또는 오디오 컴퓨터(선택) 사용	스피커 스피커(선택) 사용
IC카드 입력	가능	불가능
고용빈도	학생주최이고 정기성이 없다	사주 시스템이 도입되고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한 정기성이 있다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재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그램,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후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AX : (02)705-5229